



會長

鄒 義 錫

丁巳년도 머지않아 저물어 가는 오늘 이 자리에 會員 여러분을 모시고 第五回 定期 總會를 갖게 되었음을 無限히 기쁘게 生覺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보건대 우리 水道人이 다 같이 念願하던 모임인 韓國上水道協會가 發足한 以後協會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恒常 聲援과 激勸를 보내주신 關係機關과協會 運營에 積極 參與하여 주신 全會員과 그리고 任員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其間協會는 發足이후 여러가지 어려운 事情으로 因하여 活動이 多少 低調한 때도 있었읍니다 마는 지난 一年間을 도리켜 볼 때에協會의 將來 活動의 基礎를 튼튼히 다져 놓은 한 해 였다고 하겠읍니다.

그 첫째로 第一回 水道심포지움의 開催를 들 수 있겠읍니다.

이 行事は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水道分野만을 主題로 擇해 가지고 未洽하나마 첫 걸음을 始作하였읍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水道界 發展의 求心點이 되는 行사로 今年에 이어 來年에도 이런 모임을 갖고자 하며 每年 거듭 하므로써 權威있고 알찬協會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으로 生覺되며 水道人이면 꼭 參與하는 모임으로 키워 나가도록 努力하겠읍니다.

다음 둘째로 水道關係 國際機構等과 交流를 通한 水道界 發展에 寄與입니다.

其間協會 發足이후 懸案問題였던 國際水道協會 加入을 위한 努力이 建設部의 積極的인 後援에 힘입어 今年 九月 正式으로 加入이 되어 國際水道協會 第四十三番號 法人會員으로써 우리協會가 加入이 確定 되었읍니다.

또한 지난 十一月 二十七日 부터 三十日까지 泰國 방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東南亞細亞 九個國이 모여 東亞細亞 水道協會를 發足시켰으며 이 會議에 代表團을 派遣하여 우리나라 水道界의 現況을 紹介하는 機會를 가진바 있었으며 이로써 國際交流의 基礎를 마련 하였다고 自負하는 바입니다.

다음 셋째로協會 事業計劃에 의한 目的事業의 積極的인 推進입니다.

其間協會는 會員加入의 門戶를 開放하여 多數의 會員이 새로 加入하므로써 發足 當時에 比하여 會員數에 있어서 約 五倍의 增加를 보게 되었읍니다.

또한協會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會誌水道를今年에四回發刊 하므로서通卷十二號를記錄하게 되어名實共히專門誌로서의聲價와位置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以上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發展을 가져온原動力은 모두會員여러분의協助에依한結果인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其間協會가發展할 수 있었고活動할 수 있었던素地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感謝함을多少나마表示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會員 여러분을 모시고協會의 지난一年을 되돌아 보고 또 앞으로一年間遂行해 나갈計劃을 세우는 모임으로서 여러분께서審議해 주셔야 할議案들을 마련 하였으므로 아모쪼록有益한高見과眞摯한討議를 하셔서오늘의總會가和氣霽靄한霧困氣속에서協會發展을 위한結實을 맺어 주시기 바라면서簡單하나마人事에 가름합니다.

感謝합니다.

一九七七年 十二月 十日

(第五回 定期總會開會辭)

